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11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1, 청원 시편, 시편 92편입니다.

자,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너무나 죄가 많아 우리가 행한 일과 하지 않은 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당신의 은혜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며 겸허히 반성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 기도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교회와 성경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당신의 성경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성령으로 불어넣어져 우리와 함께하시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시고 전파하시는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Bill Mounce와 BiblicalTraining,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에 참된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진정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능력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찰은. 우리는 10번째 강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 강좌는 우리에게 시편을 소개하는 강좌입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 목표는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생각 속으로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연구의 역사에서 연구에 대한 10가지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편의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두 가지 주요 목표인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더 깊고 더 명확하게 열어주는 다섯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이 역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접근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배적 접근 방식, 수사학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편집되고 결합되는지에 대한 편집 비평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접근 방식에 대해 하루를 보냈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며 다윗의 저자임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시편의 눈이 왕이요, 시편을 왕의 찬송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왕에 관한 것입니다. 왕은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례 시편에서 우리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름부음받은 자를 위해, 즉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반에 걸쳐 Gunkel은 왕을 언급했기 때문에 10개의 왕실 시편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편에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왕이 기도하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음악 감독에게 넘겨주고 우리 모두가 왕과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말하는 시편에 대한 신약성서 해석에 견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경력과 기도의 그림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을 암기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끊임없이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그의 어휘의 일부일뿐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고난과 고난에 따르는 영광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석적으로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적 접근 방식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시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통찰력을 줄 뿐입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다윗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을 다윗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 온 사람들이 시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모든 시편을 실제로 살펴보고 그 형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형식비평적 접근이다. 그리고 실제로 Gunkel이 이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영적 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말하는 것 중 일부는 매우 문제가 있는 말이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그는 시편이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확실히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시편 전체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편이 서로 다른 범주,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섯 가지 유형을 식별했습니다. 그는 찬양의 시편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찬송가였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왕의 시편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유형의 찬송, 즉 왕의 시편이거나 긴장된 시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가, 불평, 청원의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한 공동 애도와 감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군켈을 읽은 후 달라스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것은 성경강해 강의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문헌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Gunkel을 통해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시에 역대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한 역대상 16장 4절을 읽었습니다. 헤스키 르(heskir)는 청원으로, 하돏은 감사로, 할랄은 찬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궁켈이 본문에서 바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형태는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 역대기 저자, 영감 받은 역사가는 시편, 간구, 찬양,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론 내린 왕실 시편은 앞서 말했듯이 열 시편에만 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범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이 세 가지 범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찬양의 찬송, 찬송의 찬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방법론은 형식, 즉 찬송가를 식별한 다음, 그러한 종류의 시편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한두 개의 특정 시편으로 범위를 좁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크게 보면 찬송가이고,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특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칭찬하라는 부르심이고 칭찬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 즉 찬양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티프를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라는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애적이라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를 칭찬하라고 말해야 하고 우리는 그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대한 부르심과 우리가 고려한 다른 요소들의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찬양의 이유에서 우리는 시편의 신학을 실제로 배울 수 있으며,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찬송에서 하나님의 숭고한 속성,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 그분의 공유 가능 속성을 열거합니다.

그의 전달 불가능한 속성은 그의 능력,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에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자신도 그분께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호흡 자체도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며, 편재하십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송영 신학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가르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통해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책을 영감받은 성경의 일부로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을 배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모티브를 고려하고 그것들과 다른 것들을 생각한 후 실제로 이 시편을 부르는 공연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사람들에게서만 찬송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과 같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그분께는 가증한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어떤 음악, 가스펠 음악,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증하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우리가 복음 노래 등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런 종류의 조사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요 유형에 이르렀습니다. 즉, 아닙니다. 그러면 칭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일스게 쉬히테(heilsgeschichte)는 구원 역사뿐 아니라 해석된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정복과 정착을 다룬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 시대 이후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역사적 기록에서 기념하는 것은 출애굽과 정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찬양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노래로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했고, 어쩌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 말씀의 서약, 희생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것이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소 잘못된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 노래라고 부릅니다.

NIV에서는 히브리어 'Thanksgiving'이 영어 'Thanksgiving'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추수감사절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감사한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감사찬양의 시편을 바치지 못한 것입니다.

찬송가는 시편 두 곡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공동기도서에 나오는 첫 시간에 온 땅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 땅 이여,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목장의 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중보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한 후에는 이제 찬양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세세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0편을 보았고, 또 한 시간 더 시간을 내어 시편 8편의 위대한 찬송인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를 봅시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시편 9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성경이 있거나 내가 번역한 성경이 당신 앞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시편을 한 단어씩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꾀하다.

즉,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와 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겪으면서 한 마디 한 마디 묵상 합니다.

좋아요. 그럼 번역인 시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현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르도록 되어 있었고, 반주를 곁들여 불렀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에서 불려졌을 것입니다. 음,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노래는 성전에서 특별한 제물과 함께 불렀으며 안식일에 불렀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인 안식일에 성전에서 이 시편을 부르던 첫 번째 성전 기간에 이미 속해 있는 원본 텍스트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는 열현 비파와 부드러운 수금의 소리로 밤 동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당신의 신뢰를 선포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행위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인하여 내가 기뻐 부르짖나이다.

나는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문자 그대로 매우 깊고 심오합니다. 영국인은 모르고 바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풀처럼 번성하고 악인이 다 꽃을 피우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보라, 너희 적들은 나다.

보라, 너희 원수들은 멸망하리라. 행악자들은 모두 흠어졌습니다. 당신은 내 뿔을 들소처럼 높이셨고, 나는 그것에 풍부한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나를 매복시키려는 자들을 승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공격한 악인들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내 귀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I Am의 집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그들이 번성하느니라. 그들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번창할 것입니다.

수액이 가득하고 잎이 무성할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이라고 선포한다." 후센 교수와 나는 세 번째 주석, 즉 그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교회의 목소리를 추적하는 역사적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세 번째 권에서 다루게 될 시편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책은 기독교 예배로서의 시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애도서인 시편이라는 두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지혜와 기독교 예배로서의 시편이라는 세 번째 책을 펴내려고 합니다. 감사의 노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나는 주석의 일부로 이 시편을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이 약간 다른 번역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이고 그 번역은 주석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논평에서 그 번역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듯이 모든 번역은 충실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충실하다는 말은 모두 원본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적절합니다. 즉, 적절하다는

것은 누군가,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죽일 만큼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전달했고 그것은 적절합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발굴과 고고학 유물, 그리고 루터나 칼빈이 결코 접할 수 없었던 셈어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것은 저와 같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부름을 받은 저는 신학교가 시작될 당시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장학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그것을 내 논평 작업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신발의 작은 발가락이고 우리는 이것을 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기본, 즉 모든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이제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시편의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를 특징짓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것은 병렬성입니다.

한 줄을 말한 다음 그에 관련된 줄을 말합니다. 모든 절은 평행법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절,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은 I Am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병행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 즉 나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관련된 진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I Am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당신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분을 노래하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중과 예배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회중에게 연설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회중의 일부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체적으로 야훼를 언급합니다. 그 이름은 '나는 존재한다', '영원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I Am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핵심은 8절의 중앙행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처음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병렬성입니다. 그게 내 요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상상력이 풍부해요. 시의 또 다른 특징은 비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며,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서 악인은 풀처럼 번성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처럼 번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 보세요. 풀은 빨리 자라며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키가 커서 영원히 사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비유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면, 적어도 나에게서는 도움이 되는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이고 매우 간결합니다.

따라서 구절은 스냅샷과 같고 슬라이드쇼와 같습니다. 산문 같은 게 아니고,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거죠. 이 구절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시에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사찬양의 노래이다. 두 가지 소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I Am에게 감사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하라고 부르기보다는 선포하고 칭찬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그는 2절에서 장군에게 두 가지 일반적인 특성, 즉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선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4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I AM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는 특정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행위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인하여 내가 기뻐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다시 평행법을 사용하면, 당신에게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손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보고 기뻐 외치실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인 10절과 11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0절, 주께서 내 뿔을 들소 같이 높이셨더니 내가 좋은 감람기름을 발랐느니라. 그리고 내 눈은 나를 매복시키려는 자들을 승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한 악인들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내 귀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의 공격을 받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위기에 처해 있었고 지금은 뿔 달린 들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뿔을 그의 원수들 위에 높이사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매우 간결하지만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뿔은 들소 같고 그 뿔은 좋은 감람기름을 발랐나니 그는 존귀하시도다

그리고 나는 나를 매복시키려는 자들을 승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개인이 아닙니다. 전사, 왕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것은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왕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왕입니다. 이제 그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모든 백성이 부를 수 있도록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는 특정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슬기로운 사람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이 풀처럼 번성하고 모든 악행이 피어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찬양의 노래입니다. 나는 106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상단인 107페이지에서 나는 구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말했고, 내 눈은 나를 매복시키려는 사람들을 승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결국 10절과 11절의 특별한 승리에서 악인이 번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질 계획의 일부라는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는 의인의 보편적인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시편은 끝납니다. 저는 107페이지의 숫자 4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독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문적 문헌에서 사용되는 삶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 연주 등은 모두 아침에 선포할 2절과 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10현 류트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안식일, 곧 주일의 일곱째 날에도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희생과 함께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 보다 전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몇 가지 참고문헌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내용은 성전 환경을 가리킵니다. 1절a절은 회중을 대상으로 한 다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자신이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가정합니다. 13절, 나는 있는 자의 집 뜰에 심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번성함을 주목하라. 이제 승리한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성전에 있고 의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뜰에서 그와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 도구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탈무드의 일부인 미쉬나에 따르면 두 번째 성전의 레위 성가대는 매주 매일 시편을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일요일에는 24곡, 월요일에는 48곡, 화요일에는 82곡 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92일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 시편을 부른 것은 유대 전통입니다.

108페이지에 세 번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Alter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Alter는 David 등의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이것이 그들이 성전과 첫 번째 성전을 가졌던 유배 기간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렀던 찬송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였습니다. 제자들이 불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불렀고, 크리소스톰도 불렀습니다.

카롤링거 시대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교부들은 이 시편을 부르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과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성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이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내부로부터 배반당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자유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말은 죽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어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말은 우리 얼굴에 흠 한 삽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어는 승리한 부활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나는 또한 우리가 이미 그것이 왕실의 시편이라고 말한 것을 기대하면서 알아차렸습니다. 다윗 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마 표제가 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어느 경건한 왕이 쓴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이다. 즉,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들의 궁극적인 나무와 같은 존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불멸성은 아직 실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불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약성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나무는 내부에 수액이 가득하고 잎이 두껍고 외부에는 활력이 있는 나무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나무의 살아있는 장수 이미지를 남기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영생을 향한 궤도에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약성경의 완전한 명확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성서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추론하지만, 이 시편에서 무엇보다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궁극적인 승리는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통역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타르굼이다.

타르굼은 예수님 시대 이전의 아람어 번역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마디로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역입니다. 매우 해석적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Targum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이 시대에도 높고 으뜸이시며, 다가올 시대에도 당신은 높고 으뜸입니다. 그것은 영원했다.

그러므로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그러하다. 내 생각에 그들은 그것을 매우 합법적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안식일에 대해 논평하면, 이 시편은 미래를 위한 시편, 영원히 완전한 안식일인 날을 위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갈 때의 미래와 영원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유대인 해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이 그런 종류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분에서 역사적 왕과 그의 승리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예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주 언약 공동체는 자신을 이 왕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책의 설정을 건너뛰고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학을 통해 몇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수사학은 그것이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수사학의 개념은 시편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학을 위해 온갖 종류의 구조와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시편을 파헤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아스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실제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회중에게 찬양을 촉구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리니 내가 주의 행사를 항상 기뻐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처음 네 구절은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구절인 12절부터 15절까지 역시 의인의 번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점은 그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인과 왕과 그의 백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옳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점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칭찬으로 마무리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이나 자신을 찬양하고,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의인과 왕과 백성이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찬양합니다.

구절에서 이것은 5와 6이어야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심오한 생각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품과 그 뒤에 있는 계산된 계획이 얼마나 훌륭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 생각은 계산된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악인의 번영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심오한 생각을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왕은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것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즉,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의 승리의 작품이었습니다. 7절과 9절에서 모든 행악자가 제거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였느니라 7절과 9절을 비교하고 유사점을 확인하십시오. 페이지에 배치된 방식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번역본은 안 봐요. 둘 다 삼콜론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우리는 시, 트리콜론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줄이 있습니다. 7개와 9개만 줄이 3개 있습니다. 7b절에서 모든 행악자들의 유사점을 주목하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하고 멸망하느니라. 이제 행악자들은 모두 흠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이 있습니다. 모든 행악자들은 109페이지에 있는 제 메모로 돌아가는 구절입니다. c와 c 프라임은 모두 행악자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벗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중앙선이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단 네 단어만 있습니다. 중심선은 당신이 영원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높은 곳에 계시며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전체에 계시고 시간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 뒤에 있는 고귀한 분입니다. 이제 그 중심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적을 제거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고 난공불락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음 라인에서 전개합니다.

110페이지에서는 칭찬에서 찬미로, 행함에서 승리로,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하는 교차구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높이 계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느니라. 내가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시편을 읽을 수 있는 렌즈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일반 영어 독자가 교차교차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A, B, C, D, D와 같은 서술형 사고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방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는 고대 근동 시 전체에 걸쳐 규범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차 구조와 교대 구조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선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2절, 오히려 포함 (inclusio) 찬양을 선포하는 데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inclusio 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시편 8편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보았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 클루시오(inclusio), 즉 봉투라고 부릅니다. 패키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선포하는 것, 찬양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의 끝입니다. 그 중심은 찬양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표어를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중심선 주위에 두 개의 연, 두 개의 큰 단위, 1절부터 7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각 절반에 1절부터 7절, 9절부터 16절까지 7절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대칭성과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학의 렌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시학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계 내에서 상당히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학계 내에서 사물이 어떻게 시적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학문입니다.

오래된 주석들에서 여러분은 내가 방금 여러분과 공유한 것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받은 장학금을 통해 시편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하버드에 갔을 때 이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소스 비평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학계가 진행되면서 학문의 좋은 부분이 많아지고, 교회가 반지성적이라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장학금을 무시하고 풍요로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계와 학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농담을 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좋아요. 이제 두 개의 스탠자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두 개의 반쪽입니다.

4절, 그다음 3절의 연을 사용하면 전반부가 들어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찬양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당신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등이 5절부터 7절까지 3절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 돌아서면

비록 별도의 페이지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5절부터 7절까지의 3절과 일치하는 3절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이 있고 마지막에는 네 절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3, 4가 있고, 7, 3, 4, 3을 만들고, 7, 3, 4를 만들고, 7을 만듭니다. 그리고 I Am이라는 이름이 일곱 번 사용되었습니다.

전반에 3개, 후반에 3개, 중앙선에 1개. 우연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들에게 익숙해지면 그들은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매우 흥미적이고 흥미롭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유혹을 줍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기쁘네요. 제가 번역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곱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1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I Am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을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양복, 재킷 등 무엇이든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기 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논리는 우리가 이 서문에서 시작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찬양,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찬양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소개는 I Am 숭고함에 대한 공동 찬양이고, 두 번째 소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인 찬양입니다. 첫 번째 소개를 주목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주목하십시오.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I Am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음악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렬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행법으로 당신이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2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3절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1A를 수정하고 3절은 1B를 수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I Am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침에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밤에도 주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절에 맞춰, 10현 비파와 수금으로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사를 발전시킨 다음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묵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그 비유적 표현을 아침과 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리즘(merism)이라고 부릅니다. MERISM은 낮과 밤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시간, 여름과 겨울, 봄과 수확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메리즘(merisms)과 메리스무스(merismus) 라고 불리며, 완전한 단어는 메리스무스(MERISMUS), 메리스무스(merismus) 인데, 이는 반대의 진술로서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찬양이라는 섹션을 이끌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섬기는 성전에서 행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지칠 줄 모르는 찬양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5절에 요약된 진술이 있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가 깊다는 것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보는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잔인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자에게서 그것을 숨기십니다.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깁니다. 이해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이 치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깊은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 일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연구에는 실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린다. 일반 목회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모든 일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님이 해병대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 해설을 씁니다. 그는 항상 최전선에 서서 온갖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등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은 목회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의 신부님이 나에게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셨다. 이 나이에 나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글을 쓰는 데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수업이 좋아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요약 진술, 그리고 나서 그가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심오한가. 그러면 그는 바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발전합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악인이 변영하여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악인을 변영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중심선은 하나님이 영원히 높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중앙선인 두 번째 연 이후에 발전하여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행악자들은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행악자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마지막 연은 성전에서 의로운 변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답, 의인은 성전에서 번성하고 노년에도 번성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느니라. 그리고 어제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분께 어떤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그가 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는 돌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선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그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모두가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은 모두 예비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은.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Page 11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찬양의 서문과 두 가지 서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단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루고 스타일을 다룹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한 것이 삶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삶을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아름답습니다. 매력적이다. 이것이 바로 선에 대한 두 가지 생각입니다.

생명을 향상시키고 생명에 이로움을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질적입니다. 매력적이고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시편을 작업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매력적이고 즐겁게 느끼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칭찬의 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14페이지에서 찬양의 음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의 서문을 보게 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평했고 이제 115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일과 생각의 위대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많은 것에 대해 논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으며 돌아가서 반영하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서는 깊고 심오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6번에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으로서 이것은 116페이지의 두 번째 줄입니다. 악인은 I Am으로부터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의 계획을 숨기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116페이지로 돌아가서, 바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그들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들을 이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게 놔두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대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생각과 계획의 일부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멸망되기로 되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시편은 원수를 이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한 유형입니다.

잠시 멈춰서 방금 말씀하신 한 가지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맞습니다. 내 말은, 좋은 사람들이 겪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청원 부분에 이르면 대부분의 시편이 다른 시편보다 더 많이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애도와 고난과 어려움이 의인에게는 규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가 승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히브리어 감사의 정의를 말하겠습니다. 오른쪽.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의의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에 너무 지치고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허식과 미혹과 사악함과 거짓말과 속임을 멸하실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탐심, 그 모든 악과 쓰레기는 모두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삶의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심오한 생각의 일부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경건한 사람,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바보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118페이지의 단 한 가지 점이 그들이 멸종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멸종이라는 단어, 이 샤마트는 히브리어로 항상 인간 행위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들을 금지하고 제쳐두는 것은 항상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이 중요하고 그 뒤에는 주님이 높이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위대한 작품의 일부이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그의 심오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빌. 괜찮은.

글쎄, 내 생각엔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해줄게, 내 마음을 바꿀게. 이것을 계속합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빌, 계속하겠습니다.

응. 시편을 끝내야 해요. 마음을 바꿔야 해요.

시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반 작업에서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좋아요. 괜찮은. 우리는 두 번째 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리가 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시편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우리의 평소 수업이지, 그렇지? 괜찮은. 119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모든 행악자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적들은 멸망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지 9절 끝부분에 나오는 '행악하는 자는 다 흠어진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하의 노트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흠어졌다는 것은 모두 흠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암사자의 새끼를 흠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암사자의 새끼들이 흠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요점은 새끼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스스로 재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악자들의 공동체도 흠어지면 그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탠자 아래 두 개는 왕이 그의 적들에 대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왕의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은 적들의 패주를 보고 듣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크시니 내 뿔을 들소 같이 높이셨도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나는 그것을 풍부한 올리브 오일로 문질렀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지만 그는 그의 소명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뿔을 문질러서 더 잘 모아지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나를 매복시키려던 자들을 내 눈이 승리의 눈길로 바라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내 귀는 그들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승리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 귀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기부하고 그가 얻은 이 위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았지만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는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흥미 롭군.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편 22편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해 영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승리입니다.

이제 122페이지에 12부터 15까지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된 후 이제 의인이 변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후에 우리도 변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부터 15장까지 의로운 자들이 변영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있는 자(I AM)가 정직하다. 의인의 변영과 칭찬은 왕이 행악자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성전에서 변성합니다.

그 아래 A에서는 13절에서 그들이 종려나무처럼 변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상적인 언어입니다.

악인은 하룻밤에 자라서 멸망하는 풀과 같고 의인은 높이가 90~100피트, 60~90피트, 7층까지 자라는 종려나무와 같다는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인 레바논 백향목은 높이가 120피트나 되어 마치 12층 건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연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을 레바논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안합니다. 이는 제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나무들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우뚝 솟아 있는 나무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통치합니다.

그들은 위엄이 있고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대추야자나무는 300~600파운드의 과일을 생산합니다. 백향목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자 그들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훌륭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무에 대해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입니다. 나는 네 가지를 12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그것들은 위엄 있고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것은 대추야자 형태의 음식을 제공했고 그 수액은 와인을 굽는 데 감미료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크기에 도달하면 300~400개, 어떤 경우에는 600파운드에 달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개발할 또 다른 점은 두 나무 모두 풍부한 물 공급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번영하기 위해 영적 양식의 풍부한 공급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소홀히 하면 그들은 쇠약해집니다. 그들은 올바른 음식이 없고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을 소홀히 하며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 양식 등이 필요합니다.

장수입니다. 이 나무들은 살아있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야자나무가 약 200살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씨앗은 비옥하여 5,000년 된 씨앗이 아직도 싹트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 이미지가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라이헨(Reichen)과 롱먼(Longman)이 쓴 성경 이미지(Images of the Bible) 같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가 있다. 성경의 이미지는 여러분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증가한다는 뜻이며, 부의 증가에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의와 생명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그 증가가 너무 커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키가 120피트 이상일 수 있으며 아름다움, 키, 가치, 다산 및 장수 면에서 탁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사전에서 나온 데이터 중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각주 144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이미지 사전입니다. 나는 그 책을 당신의 도서관에 추천합니다.

절의 A, 즉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성전에 심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뜰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인데 보통 성전 안에는 종려나무가 자라고, 성전 안에는 레바논 백향목도 자라나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그는 그것을 에덴동산, 낙원의 정원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원에서 처음에는 첫 번째 성전이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첫 번째 성전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던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정원을 흐르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풍부하고 풍부한 물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그 물은 동산을 통과한 후에 네 개의 원수와 네 개의 강으로 갈라졌는데, 그 이야기에서 온 땅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정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원이 정원으로 묘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편 1편에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아슈르바니팔의 아시리아 부조에 묘사된 사원을 보여줍니다. 산 꼭대기에 사찰이 보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보입니다.

그 앞에 작은 정자가 보이고 그 안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사원 모퉁이에 강이 있는 것을 보세요.

45도 각도로 정원을 통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강 밖에는 시편 1편에서처럼 물의 흐름, 즉 물의 운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주변 전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 것들이 정원에 자라는 야자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그의 그림입니다. 에덴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거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나무와 같습니다. 즉, 말 그대로 나무가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번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같이 공급을 받으며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분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며 물길처럼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전 동산에 있고 풍부한 물 공급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삶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원에서 번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정상적으로 함께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자수는 더운 지역에 있고 오아시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조한 풍경 속에서 오아시스와 탐의 깊은 뿌리에서 물을 얻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대로 오아시스에는 야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뜨겁다.

낮은 나라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높은 산 위에 있어 차갑다. 그들은 다양하게 반대되지만 둘 다 주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에큐메니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있는 의인들을 구성하며, 모두 같은 샘에서 마신다. 그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일부입니다.

나는 구약의 성경 구절에서 물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은 노년에 번성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의인은 노년에도 번성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무들의 수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번성하고 수액이 가득할 것이며, 내적 건강과 안녕과 앞서 무성한 모습, 모세와 같은 외적 건강과 활력의 모습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내가 정직하고 의롭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I Am이 올바르다고 선언하는 단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128페이지에서는 올바르다는 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면 곡선이나 구부러짐 없이 곧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수평을 이룬다는 뜻이다. 즉, 완전히 직선입니다. 흠집이 없다는 것은 부딪힘도 없고, 곡선도 없고, 구부러짐도 없이, 직립한다는 생각이 흠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입니다. 그게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토라 윤리에 따르면 흠잡을 데 없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댓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128페이지에 공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탤릭체로 되어 있지만 공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바위를 보고 나는 바위의 모습, 나의 바위에 대해 논평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이전 에 견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절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전과 안전과 구원 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관통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인 이 바위가 있으면 당신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바로 그 시편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은 선언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시는 그것의 신학이다. 저는 그것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